

주의 수난 성지주일

기도서 P. 275 A해

- 제1독서(이 사 50, 4-7)
- 제2독서(필립 2, 6-11)
- 복음(마태 27, 11-54)

숲 정 이

발행 천주교 전주교구
 편집 사 목 국
 인 쇄 관 리 국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6
 전주 교구청
 ☎ ③ 5098 ④ 2935

□ 강론



“그분의 수난을 바꿀 수는 없다”

강 인 찬 신부

사람들은 누구나 고통을 싫어한다. 물론, 사랑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피투성이가 되어 조롱을 받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있는 보잘것없이 보이는 한 분의 뒤를 따른다. 그분은 비참하게 재판관을 받고 사형을 받으신 분이다. 그분은 가장 가까운 제자로부터 온 때문에 배반을 당하셨다. 그리고 다른 가까운 제자들은 위협을 느끼자 그분을 버리고 도망쳤다. 제자들의 으뜸이라고 하는 베드로마저 그분을 세번이나 배반하였다. 그분이 받은 재판은 모순투성이였고, 전혀 일방적이었다. 그분의 심오한 진실이 불신을 당한 것이었다. 악당들은 다른 죄수보다 더 처참하게 학대하였다. 그분은 말할 수 없는 체적질을 당하고 생각하기도 끔찍한 가시관을 쓰시고 기력이 없는 상태에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결국 십자가에 못박혔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신앙심이 깊다는 사람들, 환호하던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신 것이다. 즉 <성전을 헐고 사흘이면 다시 짓는다던 자여! 네 목숨이나 진저라, 네가 정말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마태 27장 40절) 이렇게 처참하게 당하신 그분을 우리는 사랑하고 믿는다. 우리가 정신이상자인가? 아니면 그럴만한 이유가 있던 말인가? 그 이유가 일주일후면 밝혀질 것이다. 그 수난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며칠 후면 알게 될 것이다. 그 이유를 우리는 알기에 그분을 사랑하고 믿는 것이다. 그 이유가 지금도 온 세상을 비추고 있지만, 은총받은 자만이 알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아는 것은 수난과 죽음을 통한 부활로서 하느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또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아는 것이다.

수난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히 수난과 고통을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인간적 이유때문에 그분의 수난을 잊으려 할 것이다. 그리하여 안일한 신앙생활, 고통이 수반되는 희생과 봉사, 사랑없는 신앙생활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히 그분의 수난을 마음속에 새기고 믿을때,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것이며, 그 수난에 동참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길 것이다. 그리하여 희생과 봉사 사랑실천도 기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기억하자. 주님의 수난을!

그분의 수난은 분명하다. 다르게 그분을 꾸밀 수는 없다. 그분의 수난을 안일함으로 바꿀 수는 없다. 주님을 우리 마음에 맞는 예수님으로 변케 할 수는 없다. 오히려 우리가 십자가의 수난에서 변화를 받아야 할 것이다. 오로지 그것 뿐이다. 수난과 죽음, 이것이야말로 구원의 방법이며 조건인 동시에 우리 구원의 길인 것이다.

<정읍 천주교회 주임신부>



4월을 사는 마음

—부활의 준비

대지(大地)가 생동하는 4월, 우리는 나무를 심고 가꾸는 마음을 배운다. 이 시대의 목탁(木鐸)인 신문의 날 기념일을 함께 축하하며, 민의(民意)를 올바르게 대변할 수 있는 국회의 개원에 두 손을 모으며 관심을 보내기도 한다. 4월이 더욱 아름다운 연유는 부정과 불의의 숨통을 짓누른 4.19가 있었고,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건너는 부활절이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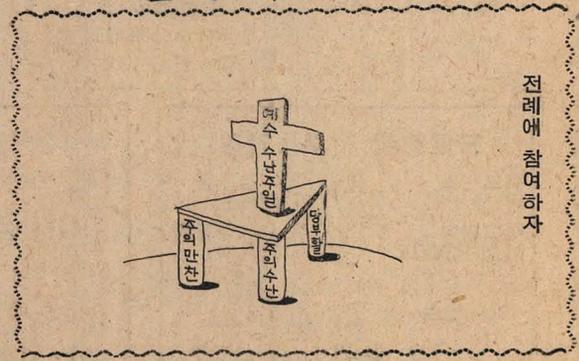
나무는 심는 마음보다 가꾸는 자세와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 나무를 가꾸는 자세에는 생명에 대한 존엄성이 밀바탕을 이루어야 한다. 생명에 대한 존엄성이 없이는 나무를 가꿀 수 없고, 자식을 기를 수도 없다.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 없이는 사람을 가르칠 수 없고, 나라 살림을 맡아 할 수는 더욱 없다. 생명이 약동하는 이 4월에 생명의 존엄성을 다시 배워야 한다.

신문사들은, 아니 신문인들은 올해의 신문 표어를 '시대를 이끄는 신문'으로 정했다 한다. 신문을 일컬어는 고전적(古典的)인 표현에 <사회의 목탁>이라는 말이 있다. 목탁이라 함은 <세상 사람을 가르쳐 바로 이끌 만한 사람이나 기관>을 말한다. 흔히들 텔레비전을 <바보 상자>라고 하는데, 혹시라도 신문들이 일방적인 정보만을 주어 우리들을 영종하게 이끌지나 않는지 지켜보아야 하겠다.

축하와 찬사를 보내면서도 우리의 할 바는 다해야 한다. 우리 손으로 뽑아준 국회의원들이 당리당략으로만 조종을 받는 로보트(거수기)가 되지나 않는지도 지켜보아야 한다.

한 포기 꽃을 심고 가꾸는 마음으로 이 좋은 4월을 후회없이 보내자. 그러면 먼저 자신을 되돌아 보아야 한다. 그리고 항상 죽을 수 있는 마음과 자세로 살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부활을 준비하는 태도이기도 하다.

숲 정 이 산책



전례에 참여하자

사제 연수회 안내(Aggiornamento)

금번 본 교구내 전 사제들이 함께 모여 사제생활 쇄신을 위한 특별 연수회를 갖게 됩니다. 다음 사항을 주지하시고 이 연수회의 성공을 위해 보다 많은 관심과 기도를 바랍니다.

1. 일정과 내용

기간: 1981. 4. 27(월) 오후 2시부터~5. 16(토) 오전 10시까지(3주간)

장소: 서울 상지회관

대상: 교구내 전 사제(은퇴신부 자유)

내용: 제 1 주-사제생활의 현실분석 및 문제점 제기 (제 단체 문제 토의)

제 2 주-사제의 의미 및 말씀의 신학, 성서(시창작 교육)

제 3 주-방향제시 및 방법적 고찰, 사제의 영성 (메스컴 연구)

강사: (국의)-필리핀 E.A.P.I(동남아시아 사목연수원) 6명 강사

(국내)-사제, 전문가 7명 강사

2. 유의사항

① 각 본당에 3주간 동안 평일미사가 없게 됩니다. 필요한 미사는 미리 신청하셔서 연수회 동안 드릴 수 있도록 본당신부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연수회 기간 2주일(5월 3, 10일)은 평신도에 의한 말씀의 전례로 대신합니다. (주보 게재 예정)

③ 본당내 제반 사항은 사도회와 상의해 주시고 특히 3주간 동안의 평일 신집(기도)생활과 단체활동 및 2주일의 말씀의 전례에 모두 참석하십시오.

④ 사제 연수회 동안 면회금지룰 원칙으로 하고, 토요일 오후와 주일은 휴식입니다만 세미나 일정에 속합니다

3. 협조사항

① 영적 빨랑카: 본 연수회 성공을 위해 신자들의 절대적인 많은 기도가 요청됩니다. 본당별, 단체별, 개인별로 많은 영적 기도를 보냅니다.

② 물적 빨랑카: 외국에서 6분의 강사까지 모시게 되는 이번 연수회는 많은 경비가 소요됩니다. 또한 교구내 전 사제가 함께 모여 긴 시일을 함께 생활하는 만큼 이에 따른 일상 생활비의 부담도 큰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 여러분들의 물적 빨랑카의 정성은 사제들을 위해 긴요하게 쓰여질 것입니다. 정성과 사랑이 담긴 물적 빨랑카를 많이 보내 주시므로써 성공리에 끝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적 빨랑카나 물적 빨랑카는 우편을 이용하시거나 직접 찾아오셔서 언제든지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주소: 132-00 서울 성북구 돈암2동 413-79

상지회관(아리랑고개, 신흥사 입구)

전화 92-3547, 92-5194

4. 기도요청

금번 사제연수회 성공의 결정적인 요소는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의 기도에 달려있습니다. 이에 교구에서는 「사제들을 위한 기도」를 5월 16일까지로 정하고 4월 27일부터 특별 기도를 실시합니다. 매일 매일 개인적으로는 물론 공식 모임에서도 이 기간동안 사제들을 위한 기도를 바치므로써 이번 연수회에 하느님의 은총과 도우심이 있으시도록 많은 기도를 드립니다.

사제들을 위한 기도

十 아버지 하느님,

사제생활 쇄신을 위해 3주간 특별 연수회를 갖게 되는 우리 교구 사제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그들로 하여금 당신의 사랑을 깨달아 이를 증거하게 하소서

그들로 하여금 당신의 봉사를 뒤따라 이를 실천하게 하소서

그들로 하여금 당신의 믿음을 본받아 이를 지켜 가게 하소서

그들로 하여금 당신의 가난을 수락하여 이를 살아가게 하소서

그들로 하여금 당신의 겸손을 배워 스스로 낮아지게 하소서

마침내 당신 삼위일체를 본받아 모두 하나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천주교 전주교구

교회상식 ⑥

성지(聖枝) 주일

부활주일 한주일 전일 예수 수난주일을 「성지주일」이라고 한다. 인간에게 약속된 구원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그리스도께서는 백성들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는다. 즉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며 그 포서로 옷을 길거리에서 깔고 빨마와 푸른 나무가지를 흔들며 환영하였다. 이러한 뜻으로 우리도 성지주일에 빨마나 다른 푸른 가지를 들고 행렬하며 그리스도를 찬양하는데 이 예절은 4세기부터 시작되었다.

성지는 그리스도의 승리와 악마를 대적하는 상징물로서 축복의 뜻이 있기에 그 해 성지주일에 사용된 성지들 일년동안 집에 걸어두는 풍습이 있다. 사순절의 시작인 제의 수요일에는 미리 성지를 태워 재를 만든 다음 참회와 겸손의 뜻으로 미사전에 예절을 통하여 이마에 바른 다. (김기수 신부)

三星物産 전주특약점

Weekend  버킹검
MCG REGOR 주니어 아동복 (남 여)

전주시 중앙동 3가 96
삼화약국 옆 전화 ④ 4 4 5 1
유 울 리 안 나

신자 여러분에게는 특별 봉사로
모시겠습니다

미경 의 상 실

전주시 경원동 3가 90~7
☎ ⑥ 0156(동부교회 옆)
주. 경양수(방지거) 이요안나

표구 일절
 서화 매매

윤 표 구 사

전주시 중앙동 1가 48
(다가동 파출소 앞)
윤 병 훈(아오스님)
전화 ④ 6 4 4 5

교구 성가대 연합회(가칭) 발기 모임

교회음악(성가)을 장려하고 그 질적 향상과 보급을 도모하며 각 본당 성가대의 육성 발전과 더 나아가 교구 합창단의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이미 오래 전부터 교구단위 연합기구 결성의 필요성을 절감해 왔다.

그런데 드디어 지난 3월 21일 각 본당 성가지도자 모임을 제기로 그 결성 움직임이 서서히 다져지기 시작, 그간 몇차례 대표자들의 준비모임을 거쳐 비로소 그 태동이 눈앞에 이른듯, 이제 그 연합체의 골격과 회칙시안이 마련됐고 곧 전체회의를 소집, 대망의 창립총회를 갖게 되리라는 전망이다. 아마 부활 다음주일(4월 26일)쯤이면 대 회합을 갖어 성대한 출범을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다소 때 늦은감마저 없지 않으나 모쪼록 새로히 발족될 본 연합회가 오늘의 교회선양과 특히 성가를 통한 신심향상에 크게 기여하는 튼튼한 단체로 성장 발전해 주기를 지레 빌어마지 않는다. 아울러 제위·신부님, 회장님 그리고 관계 음악인들과 성가를 사랑하는 모든 형제들의 따뜻한 성원과 협력 있으시기를 고대한다.

고산 전자 오르간 비치

아버지 하느님께 보다 큰 찬미와 영광을 드리기 위해 고산의 자녀들이 마음을 모아 부활절 사랑의 선물 하나를 봉헌해 드린단다.

큰 도시 본당들로나 겨우 갖춘 고급 악기(값가 200여만원), 그러나 님(主) 찬양하는 열성엔 농민들이 훨씬 더 앞서나 보다. 이곳 교우들의 금짜라기 같은 성금, 그것도 단 한달만에 마련한 정성이라니 가상이 그지없다.

고산 형제들의 고운 선행에 뜨거운 박수와 성원을 보내마지 않는다.

왕수해 신부님 로마 유학, 9일 출국

급속히 발전하는 현실, 좀더 새로운 학문과 진리탐구를 위해 사제 한 분이(왕수해 신부) 다시 먼 유학길에 올랐다. 왕신부님은 앞으로 성도(聖都) 로마에서 몇년간 「성서 신학」을 연구할 계획이다. (9일 오후 1시 30분 출국)

교회와 사목을 위해 쇠신(辭身)의 면학을 지망한 신부님의 건강과 전도 축복을 함께 빌어드리자.

사순절 성금운동 성소주일(5월10일)까지 연기

부족한 사제양성과 성소후원을 위해 교우들의 정성을 촉구하며 사순절에 실시하는 성금운동(퇴직적금)은 금년으로 일단 마무리지를 계획이다. 예년에 두배 정도만 모아진다면 그런데로 새 대책을 강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해섰다.

그래 아직도 관심이 부족하거나 우리의 이 좋은 뜻에 같이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모두가 함께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저금 마감일을 성소주일(5월 10일)까지로 연기로 했다.

작은 한푼 한푼이지만 가장 값지고 고귀한 성금, 금선수인 교회(성소) 장학기금에 보태어집을 명심해 좀더 큰 성의를 쏟아보자. 매년 우리는 신학생(현재 41명)양성을 위해 5,000여만원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구 사제양성 후원회>

요심이(401) 리병오



문교부(文敎部)가 인정한 유일(唯一)한 보급기관!

<사회 1074-690>

책(冊)을 신속·정확히 읽는 속독법(速讀法) 지도

※ 회원 모집

초·중·고·대학생, 일반

※ 지회 운영자 모집

사단법인(社團法人)

한국독서능력개발 연구회

전북지사(성모병원 3층)

☎ 6-4567

주 윤 희(베드루)

귀가 어두운 분께 보청기를 권합니다
의료 파락 기계 시약

東南醫療科學器械商社

전주시 서노송동 639~40
(중앙성당 옆)

☎ ③ 6900 야간 ④ 0496

金樂均(요셉)

전기 운수기 가스렌지 및 시설
가스 운수기 각종 씽크
백곰표 씽크 주방

(東南綜合 씽크商社)

전주시 서노송동 639~40

(중앙성당 옆)

☎ ③ 6900

金樂均(요셉)

성목요일(무덤 제대)

부활절 제대 장식용

각종 생화 및 소재 다량구비

진선미꽃집

전주극장 골목 전화 ②2628

범띠도(떡배) · 이 마리아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공지사항

1. 성유 축성미사 : 4월 16일<목> 오전 11시(사제단 공동집전) 중앙성당에서
2. 단식·금육의 날 : 4월 17일<금>(주의 수난)
3. 성가대 지도자(대장·지휘·반주) 모임 : 4월 26일<일> 오후 2시 주교관 회의실
4. 문학 강좌 : 4월 25일 오후 7시 30분, 강사-신동집 교수, 셋다 3층 강당
5. 제 1지구 교리교사 연합회(임원선출) : 회장-유영(요한)<정음>, 총무-홍애자(깃파)<김계>, 지도신부-김태운 ※ 차기회합-4월 26일 11시 정음성당에서

(중양)

전화 ③3651번
3874

주임 신부 문정현
보좌 신부 유인영
사도 회장 박길범

1. 꾸리아 율례회 : 오후 2시 강당
2. 성주간 예절안내
성(월·화·수)요일 예절시간은 평일과 동일함
16일 성목요일 : 오후 8시-취후 만찬 저녁미사
17일 성금요일 : 오후 8시-수난예절(무덤조배)
18일 성토요일(부활성야-망부활) 오후 8시
19일 : 10시30분 부활대축일 공식미사는 주교님 집전
3. 판공성사 : 판공성사 못받으신 분 12일 미사전까지
4. 사제생활 쇄신 집중교육(피절)
4월 27일<월>부터 5월 16일까지의 혼배는 미리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하루 마리아 빨리 : 26일 오전 9시 45분~오후 4시 30분 (학생 500원, 어른 1,000원) 접수 4월 19일까지
6. 쉼 회의실 환경식사 : 4월 12일 오후 1시

□ 지난주 봉헌금 : 493,020원

(노송동)

전화 ②7032번

주임 신부 김정원
보좌 신부 나궁열
사도 회장 박춘근

1. 부활 판공성사 일정 : 내일부터 18일까지, 매일 오전 9시~12시, 오후 2시~6시까지, 각 미사전·후
2. 베소라 성서강의 : 매주<화> 오후 7시 30분~9시 30분
3. 수녀님들 위한 베소라 성서특강 : 매주<월> 오후 2시
4. 은혜의 밤 : 24일<금> 오후 7시 30분부터 성령세미나를 받으신 분들은 빠짐없이 참석하십시오
5. 금주의 성경읽기 : 구약의 여호수아 전체
6. 분당 꾸리아 회합 : 오늘 오후 2시
7. 성모회 율례회 : 오늘 공식미사 후
8. 성가정회 모임 : 매주<수> 저녁미사 후
9. 노송신협 판공교육 : 5월 24일 교수동굴, 4월 18일까지 신청순 접수

□ 지난주 봉헌금 : 257,180원

(덕진)

전화 ②182번

주임 신부 서성기도
보좌 신부 유양영
사도 회장 양성열

1. 성주간 전례(저녁 8시)에 빠짐없이 참여하십시오
성목요일-주의 만찬 저녁미사, 철야 성체조배
성금요일-십자가 경배, 성토요일-부활 전야미사
2. 영세식 : 18일 오후 4시, 영세자들을 위해 기도 부탁
3. 판공성사 매일 미사시간을 이용하여 주십시오
4. 하루 마리아 빨리(4월 26일, 해성학교 체육관)
5. 성주간 및 부활 성가연습 : 매일 오후 2시
6. 영세자 특별교리 : 매일 저녁 8시

□ 지난주 봉헌금 : 421,810원

(복자)

전화 ②5238번

주임 신부 김종환
보좌 신부 김희남
사도 회장 조성호

1. 분당 사순절 피절
13일<월> 저녁 7시 30~10시(미사, 강론, 슬라이드)
14일<화> 저녁 7시 30~10시(미사, 강론, 영화-구세주)
15일<수> 오전 9시~오후 5시(중식 500원) 전신자
2. 성주간 예절 : 나누어드린 성주간 행사표 참조(예절해설, 독서, 복음, 봉헌, 세례에 초대된 분들을 미리 와서 준비 바람)
3. 영세식 : 18일 오후 3시 ※ 유아세례 같이함, 신청요
4. 첫 영성체 : 오늘 공식미사
5. 성금요일 헌금 : 팔레스타인 성지복구를 위한 헌금
6. 성모회 율례회 : 오늘 공식미사 후(김화영, 이정호)
7. 성목요일 무덤제대에 꽃과 화분 봉헌해 주시기 바람
8. 성체조배 시간표를 잘 보시고, 착오없이 주시기 바람
9. 미사봉헌 : 4월 27일~5월 16일까지의 미사 신청요망

□ 지난주 봉헌금 : 356,030원

(서학동)

전화 ②2276번

주임 신부 김병택
보좌 신부 한형수
사도 회장

1. 판공성사 일정 : 성사시간(오후 2~6시까지)-직장인은 저녁미사 전, 13일(1·2·3반), 14일(4·5·6반) 15일(7·8·9반), 16일(10·11·12반), 17일(13반·기타반) ※ 시간을 지킵시다
2. 성주간 예절 : 성목요일(16일)-주의 만찬저녁미사(8시) 세례·성체조배(별지참조), 성금요일(17일)-십자가의 길(오후 3시) 말씀의 전례(저녁 8시), 성토요일(18일)-부활성야(저녁 8시) 초지참 바람, 빛의 예식·말씀의 전례·성체예절·성찬전례, 주의부활대축일 미사-주일미사와 같음
3. 영세식 : 4월 18일(부활 성야미사중) ※ 참고-13일
4. 반장님 율례회 : 공식미사 후
5. 할머니회 : 다음주 공식미사 후
6. 다음주 전례담당
부활전야미사 : 독서-이정민·박병환, 기도-한형수
대주일미사 : 독서-강기호·조동근, 기도-박장춘

□ 지난주 봉헌금 : 192,360원 교무금 : 88,300원

(숲정리)

전화 ③7366번

주임 신부 이대권
보좌 신부 이강노
사도 회장

1. 예수 부활주일 미사시간은 평주일과 같습니다
2. 판공성사 못 받으신분 차주 수요일까지 임해 주십시오
3. 세례식 : 부활주일 오전 9시
5. 부활주일 특별헌금을 정성껏 봉헌하십시오
6. 성목요일 주의 만찬미사 : 오후 8시-성체조배 밤9시
7. 성토요일 예수 수난예절-오후 8시
성토요일 부활전야제-오후 8시 초 축성식
7. 어머니 합창단 성가연습 : 매일 7시 30분
8. 차주 전례담당 : 해성-정주복
독서-이종상·선종현, 기도-이기호

□ 지난주 봉헌금 : 255,970원 3월 29일 : 307,670원

(전동)

전화 ③2222번

주임 신부 김병범
보좌 신부 박영준
사도 회장 이충두

1. 성주간 행사안내 : 계시판 별지참조
① 성목요일(4월 16일 오후 8시) <성체조배>
② 성금요일(4월 17일 오후 3시 십자가의 길)
③ 성토요일(4월 18일 오후 8시)
2. 축영세 : 4월 18일 오후 8시 미사중에
3. 주일학교 부활대축일 행사 : ① 교리경시대회-4월 12일 오후 1시 30분 ② 성가경연대회-19일 오후 1시 30분
4. 중고등학교 부활대축일 행사 : 교리경시-19일 오전 9시 30분, 제관판매-18일 오후 5시부터
5. 구역 회합 일정
동교동3구-4월 15일 오후 8시(홍남산씨 맥) ②0182
전동2구-4월 14일 오후 2시(유중현씨 맥) ②9228
풍남동2구-4월 14일 오후 8시(박경근씨 맥) ②6325
서완산동-4월 15일 오후 2시(이현재씨 맥) ②6786
6. 성화회 : 다음주(19일) 공식미사 후 김창신·권태욱
7. 자모회 : 공식미사 후 8. 장우회 : 저녁미사 후

□ 지난주 봉헌금 : 468,450원

(파티마)

전화 ②0915

주임 신부 김영일
보좌 신부 채수원
사도 회장

1. 판공성사 : 성사집전-부주교님, 영기봉 신부님
※ 오늘 하루 뿐(오전·오후)
2. 임시사도회 : 오늘밤 3. 꾸리아 : 오늘 오후 1시 30분
4. 성주간 안내 : 성목요일-오후 8시, 성금요일-오후 3시, 성토요일-오후 8시 ※ 행사표 계시판 참조
5. 수녀님 신축 완공단계 : 신임자는 조속 완납 바람

□ 지난주 봉헌금 : 128,820원 교무금 : 120,000원